

(2026년 7월 10일 금요일 1면)

송파구의회, 제10대 전반기 원 구성 마치고 본격 개원

손병화 의장·조용근 부의장 선출
4개 상임위원장 확정

송파구의회(의장 손병화)가 제10대 전반기 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송파구의회는 지난 7월 6일부터 8일까지 열린 제333회 임시회에서 손병화 의장(석촌동·가락1동·문정2동)과 조용근 부의장(장지동·위례동)을 선출하고,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구성해 전반기 원 구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원 구성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박인섭 위원장과 위정희 부위원장, 행정교육위원회는 전정 위원장과 김안나 부위원장, 재정복지위원회는 최옥주 위원장과 박순옥 부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는 최상진 위원장과 박순례 부위원장이 각각 맡아 위원회를 이끌어가게 됐다.

새롭게 선출된 상임위원장들은 한목소리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전정 행정교육위원장은 소통과 협력을 통한 성과 창출을 약속했고, 최옥주 재정복지위원장은 구민 권익을 위한 치열한 논쟁과 협치를 강조했다. 최상진 도시건설위원장은 단결되고 열린 위원회로서 집행부와 의견의 견제와 협력을 이뤄



송파구의회

송파구의회가 제10대 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왼쪽부터 손병화 의장, 조용근 부의장.

내겠다고 전했으며, 박인섭 운영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5선 의원의 의정 경험을 거울삼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7월 7일 열린 개원식은 개식과 국기에 대한 경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의원 선서, 개원사, 축하순으로 진행됐다.

의원선서문을 낭독하며 구민을 위한 충실한 의정활동을 다짐한 가운데, 손병화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65만 송파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의회 발전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의장직을 수행하겠다"라며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예산 집행을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되, 구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올바른 행정에는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겠다"라고 전했다.